

통기타에 젖는 시월의 마지막 밤

문화가 있는 날

시월의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먼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프로그램으로 '가을이 오면'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극단 예린소극장의 '가을이 오면'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통기타 선율을 타고 흐르는 가을 노래와 낭독극이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이용호 외에 연극인 윤여송도 출연한다. 1부에서는 노래하는 남자 이용호와 함께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가을이 오면, 고엽' 등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고 2부에서는 연극하는 남자 윤여송이 들려주는 귀로 읽는 소설 '오발탄'이 낭독극으로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은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관람객에게 공연 후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초대). 예약 062-670-7943.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향교리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행사 '향교리에서 온 편지'와 '피어나는 꽃 청춘'이 오는 31일과 11월3일(오후 3시-6시) 진행된다.

31일 열리는 '향교리에서 온 편지'는 지역 작가와 주민의 안내로 '마을 미술 투어'를 떠나고 직접 타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행사로 꾸며진다. 11월3일 토요일 열리는 '피어나는 꽃 청춘'에서는 주민이 직접 패션

쇼 무대에 서서 끼를 발산한다.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인화해 가질 수 있는 '인생사진관'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1-381-0082.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는 '2018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하나로 '여행스케치, 가을소풍'이 열린다(오후 7시 30분). 1980-199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포크락그룹 여행스케치가 무대에서 가을 음악여행을 떠난다. 조병석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을이 오면'
가을 노래+낭독극 콜라보
광주문예회관 '작은 음악회'
포크락그룹 여행스케치 음악여행
담양 대담미술관
'향교리서 온 편지' 마을 미술투어



예린소극장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과 남준봉이 만든 이 그룹은 지난 1989년 명지대에서 열린 '2회 백마가요제'를 통해 무대활동을 시작했다. 통기타를 중심으로 한 반주에 풀벌레 소리, 계곡물 소리, 빗소리 등의 효과음이 담긴 1집 주제곡 '별이 진다네'가 화제를 모아 지금까지 14장의 앨범을 내며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날 무대는 '엔지 느낌이 좋아', '눈물이 난다', '초등학교 동창회 가던 날', '기분 좋은 상상' 등 인기를 받은 노래로 채운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613-8237.

영화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는 '필름정거장 THE 시월'은 83번째 생일을 맞은 광주극장 영화제와 함께 한다. 이날 공개라디오 '영화가 빛나는 밤에'가 진행되고 오후 7시 20분에는 15주기를 맞은 장국영 주연 영화 '아비정전' (1990)이 상영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이 담긴 VHS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주는 '당신의 비디오' 등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문의 062-366-1895.

다음 달 3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서는 흥겨운 굿판이 벌어진다. 이날 오후 2시-8시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안팎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대촌에서 향악과 놀자'가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도둑잡이굿'을 주제로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보여준다.

풍자극의 하나인 도둑잡이굿에서는 탈을 쓴 잡색들이 농악과 함께 익살스런 대화와 연희를 펼친다. 이날 6시 광산농악과 전통문화연구회 일수는 도둑잡이굿을 펼쳐 도둑을 잡아 죽이고 이웃과 다시 화해한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세시놀이마당, 대촌마실탐험, 잔치마당 등으로 나뉜다. 음력 9월9일 홀수가 두 번 겹치는 길한 날인 중구절 체험으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함께 줄다리기 즐기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전통연희놀이 체험을 하며 도장을 5개 모아가면 선착순으로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작가 18명과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하면 대촌지역의 공동체문화자원을 베스로 탐방해 보는 대촌마실탐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6-3844. /박성천 기자 skypark@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베토벤의 편지

김정아 낭독 콘서트... 30일 금호아트홀·내달 26일엔 슈베르트

"아! 귀가 완전히 닳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면 자내에게 달려갈 텐데."

베토벤이 1800년 6월1일 카를 아멘다에게 쓴 편지에서 30대에 청각을 잃은 젊은 음악가의 고통이 여실히 느껴진다. 절망 속에서도 베토벤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역작을 만들어냈다. 작곡가가 남긴 편지를 읽고 연주를 통해 그들의 음악인생을 되짚는 낭독 콘서트가 열린다.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 공연이 오는 30일과 11월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낭독과 연주를 맡았다. 이화여대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정아는 광주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첫 번째 연주회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에서는 악성(樂聖) 베토벤이 띄우고 받았던 편지 속



김정아 교수

이야기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먼저 '피아노 소나타 7번 2악장'으로 문을 열고 이어 '비창 소나타 전 악장', '월광 소나타 1악장'을 연주한다. 후반부에서는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와 대표적인 '운명 교향곡 1악장'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다음 달 26일에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중 '발인사'와 '보리수', 가곡 '세레나데', '죽음과 소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연주한다. 문의 010-6331-6834.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백희준 기자 bhj@

15명의 피아니스트... 15 빛깔 베토벤

29·31일·11월 8일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음악회

'전남대학교 피아노 교수음악회'가 29일을 시작으로 31일, 11월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예술대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가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좀처럼 한 자리에 서기 어려운 각 분야의 교수 15명이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로 꾸며진다.

첫날 무대는 송민경이 '그랜드 소나타'라는 별명을 지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을 연주하며 문을 연 뒤 조우식, 황소원, 김영진의 무대가 이어지고 김지나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32번'으로 끝을 맺는다.

두번째 공연에서는 황지진이 베토벤의 유머를 엿볼 수 있는 '피아노 소나타 6번'을 연주하고 이준영이 '비창 소나타'를, 이정은은 '환상곡풍의 소나타'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 소나타 13번'을 무대에 올린다. 박미성은 테레제에게 헌정된 '소나타 24번' 송유진은 베토벤의 작품 중 낭만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소나타 31번'을 선보인다.



신수경 교수

오는 11월8일 열리는 마지막 무대 역시 베토벤이 남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엄선한 곡들로 채워졌다. 최유진이 베토벤이 청력을 잃기 시작한 1798년에 만든 '소나타 7번'으로 시작하고 김아름은 '소나타 21번'을 연주한다. 리스트의 연주로 생명력을 얻은 '소나타 23번 열정'과 베토벤이 빈을 떠날 즈음 작상한 '소나타 26번 고별'을 각각 이인지와 박보윤의 연주로 듣는다.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온 신수경 교수는 '피아노 소나타 18번'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3030. /백희준 기자 bhj@

'문학계 거목' 평론가 김윤식 서울대 교수 추도식

지난 25일 숙환으로 별세한 한국문학의 산증인이자 1세대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추도식이 지난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의 유족과 제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업적을 되새기고 닳을 기렸다.

고인은 서울대 국어국문과에서 3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내로라하는 국문학자, 평론가, 소설가, 시인 등 수많은 문인을 배출했다. 1936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서산리에서 출생한 고인은 학국 전쟁 직후인 1955년 마산상고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68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1975년 국문과로 직을 옮겨 2001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고인은 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등 연구서와 현장비평을 담은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 '소설과 현장 비평' 등은 대표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대촌에서 향악과 놀자' 중 도둑잡이굿 공연 모습. (열우 제공)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